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연구: 경험자와 비경험자 학습자의 비교*

전 병 호** · 전 병 철***

A Study on the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A Comparison of experienced learner and non-experienced learner

Jun Byounggho · Jun Byoungchul

〈Abstract〉

Dramatic transformation in education has taken place and Internet Technologies have played a key role. Especially SNS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tool because of its exceptional features such as discussion on course topics, feedback from peers and group collabo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of SNS and performance in college education comparing between experienced learner and non-experienced learner. Self-efficacy on media usage,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habit, and enjoyment were identified as affecting factors based on prior researches. The results shows that all factor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arner's attitude on the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Experienced learner's attitude on educational use of SNS in colleg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and performance. This study can provide a guideline of effective strategy for SNS utilization in college education.

Key Words : Social Network Service(SNS), College Education, Learner's Attitud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Performance

I.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은 장거리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1]. 최

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교육에 도입되고 있는데, SNS는 기존의 카페나 블로그 등과 유사하게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인간의 사회적, 감성적 측면을 고려한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새로운 학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2].

즉 다양한 SNS 활용의 보편화로 인해 교수-학습활

* 이 논문은 2016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부교수, 주저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교신저자

동의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3], 실제로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간의 관계 형성, 정보 공유, 협업, 피드백 등을 위한 도구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4].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단지 같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인맥을 형성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인식이 되었는데[5], 현재는 교육적 상황에서 SNS를 활용했을 때 직접적으로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6].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SNS의 특징과 기능이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7]. SNS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학습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육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SNS 활용 수업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교를 통해 대학 수업에서의 SNS의 활용이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틀 및 연구가설

2.1 SNS의 교육적 활용

SNS를 둘러싼 변화의 중심은 '소통 방식의 변화'이다. 대학 교육에서도 변하고 있는 소통 방식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8]. 즉 전통적인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모하기 위한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SNS는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의 지식 구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지식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학습공간이자 사용자 간의 사회적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써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9]. 실제로 SNS를 수업에 활용한 집단의 학업성취도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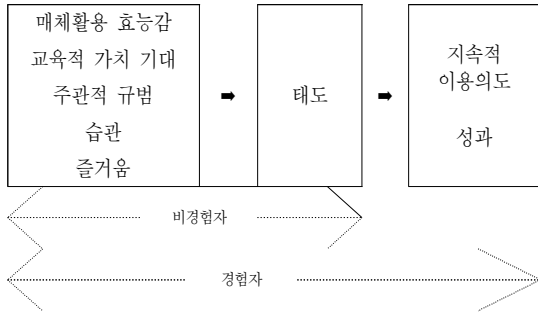
SNS의 교육적 활용은 전통적 교육 이론에서도 지지 받을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학습은 그 특성상 대화적(conversational)이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SNS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참여적 사회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상황 학습 이론 역시 SNS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해 준다. 수업에 SNS를 활용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다[8].

2.2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기대 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SNS 활용 수업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교를 통해 SNS의 교육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경험자들은 요인-태도-지속적 이용의도, 성과의 모든 관계를 분석하고, 비경험자는 요인-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경험자들에 대해서는 SNS의 수업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경험자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SNS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확인

함으로써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기술수용모델 TAM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10]. 용이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쉽게 적용하고 습득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활용 효능감과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11]. 한편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SNS에 대해 학습자가 기대하는 교육적 가치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12]. 컴퓨터 관련 교육에서도 매체활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자신감을 높여 긍정적인 태도와 성과로 이어진다고 나타나고 있으며[13], 정보기술 및 컴퓨터 활용 교육 분야에서 성과에 대한 기대 가치는 사용자 태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 이러한 관점에서 SNS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으로 정의되는 매체활용 효능감과 SNS의 활용이 학습에 유용하고 학습 성과를 신장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눈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이용은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관적 규범에도 영향을 받는다[15]. 즉 특정 행위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집단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 그 행동을 수행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SNS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관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일종의 사회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16]. 즉 자신이 준거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 특정 매체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구조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17]. 이러한 주관적 규범은 온라인 및 모바일 구매 뿐 아니라 SNS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20].

한편 사용자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나 학습으로 인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인 습관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습관은 상황적 단서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반복적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21], 테크놀로지 이용에서의 습관은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2]. 특히 SNS 서비스는 하루에도 자주 접속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습관적으로 접속하게 된다[23]. 이러한 SNS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습관과 태도간에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20].

일반적으로 SNS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한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용자들보다 SNS 활용에 대한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24]. SNS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내적인 즐거움과 흥미는 사용자의 태도와 실제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즐거움을 주 제공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뿐 아니라[25], 이러닝과 SNS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에서도 즐거움은 사용자의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27].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의도는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8].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의 만족스러운 태도는 반복 이용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9]. 이러닝 및 SNS를 활용한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만족스러운 태도는 지속적인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20, 26]. 그리고 만족스러운 태도는 성과로 연결이 된다. 정보시스템 최종사용자의 만족스러운 태도는 높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데[30], 즉, 사용자의 만족과 의사결정의 성과 및 효율성에는 강력한 관계가 존재하며 만족은 개인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31]. 사용자의 태도와 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컴퓨터 교육, 이러닝, SNS이용 및 SNS의 활용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 11, 20, 26, 32-33] 본 연구에서 성과는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좋은 학점을 받은 정도로 측정하고자 한다[34].

이상의 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해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경험자/비경험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경험자)의 태도는 지속적 이용의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실증 분석

3.1 측정 도구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개별 문항들은 내용 타당

성의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고 그 타당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항목들로부터 선택하여 본 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 척도는 <표 1>과 같다. 각 측정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값의 범위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SNS 활용 경험이 있는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보편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수업이 아니라 SNS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활용 수업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접 면접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34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89명, 여자가 252명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다소 많으며, 1학년 37명, 2학년 132명,

<표 1> 측정 척도

요인	문항수 및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매체활용 효능감	SNS 활용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정도(3)	[10-14]
교육적 가치 기대	SNS 활용이 학습 수행이나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정도(3)	
주관적 규범	SNS의 활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거나 지각하는 정도(4)	[15-20]
습관	SNS 활용에의 습관 정도(4)	[20-23]
즐거움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정도(3)	[24-27]
태도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긍정적 신념(3)	[28, 32-33]
지속적 이용의도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지속적 사용 여부 및 추천(4)	
성과	다른 과목과 비교한 학점의 정도(1)	[34]

3학년 67명, 4학년 106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SNS 활용 수업 경험자는 228명, 비경험자는 114명이었다. 수업에서 활용된 SNS는 페이스북(60%), 밴드(28%), 블로그(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목적은 '자료 공유(76%)', '정보(공지사항 등) 공유(75%)', '조별 과제(60%)', '토론(27%)', '재미(8%)'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분석 및 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값이 0.7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35],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측정도구에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의 실질

적인 유효성을 높이고 설문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 분석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 방식을 선택하였다. 요인 적재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항목들이 구성하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36].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기 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 습관의 요인이 이용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SNS 활용 수업 비경험자에 대해서는 요인-태도와의 관계를, 경험자에 대해서는 각 요인-태도-지속적이용의도 및 성과의 모든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 요인 분석 결과(독립 변수)

	습관	즐거움	주관적 규범	교육적 기대가치	매체활용 효능감
SNS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편이다	.884				
SNS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875				
SNS를 별 다른 생각 없이 사용하는 편이다	.856				
SNS를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719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흥미를 느낀다(흥미로울 것이다)		.888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재미를 느낀다(재미있을 것이다)		.861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즐거움을 느낀다(즐거울 것이다)		.858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생활에 있어서 SNS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16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수업에 있어서 SNS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68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수업에서 SNS 활용이 (조별 과제 등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조인한다			.738		
IT의 발달과 사회적 상황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635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814	
SNS를 활용하는 수업은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이다				.806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면 학습 성과가 좋을 것이다				.774	
수업에서 활용하는 SNS에서 수업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은 쉽다(쉬울 것이다)					.851
수업에서 활용하는 SNS에서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쉽다(쉬울 것이다)					.818
SNS를 활용하는 것은 쉽다(쉬울 것이다)					.734
고유치	7.684	2.108	1.557	1.211	.919
분산율(%)	452	12.4	9.2	7.1	5.4
Cronbach' α	0.895	0.960	0.814	0.923	0.849

<표 3> 요인 분석 결과(중속 변수)

	지속적 이용 의도	태도
다음 학기에도 SNS를 통해 교수님과 소통하는 강의를 수강할 것이다	.862	
다음 학기에도 수업에서 SNS를 활용할 것이다	.829	
다음 학기에도 SNS를 활용하는 수업을 수강할 것이다	.813	
SNS를 활용하는 수업을 주변 친구나 선배에게 추천을 할 것이다	.752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879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825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35
고유치	5.319	.599
분산율(%)	75.989	8.551
Cronbach' α	0.932	0.909

<표 4> 회귀 분석 결과(태도: 비경험자)

모형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습관	.197	.067	.198	2.959	.004*	.983	1.018
즐거움	.326	.069	.318	4.747	.000*	.981	1.019
주관적 규범	.334	.065	.350	5.118	.000*	.945	1.058
교육적 기대가치	.469	.074	.431	6.377	.000	.967	1.034
매체활용 효능감	.128	.073	.120	1.751	.083***	.934	1.071
R ² = .724, F = 23.742, P = .000							

* <0.01, ** <0.05, *** <0.1

<표 5> 회귀 분석 결과(태도: 경험자)

모형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습관	.236	.058	.234	4.086	.000*	.991	1.009
즐거움	.269	.056	.272	4.769	.000*	.997	1.003
주관적 규범	.223	.059	.217	3.773	.000*	.984	1.016
교육적 기대가치	.324	.054	.339	5.939	.000*	.993	1.007
매체활용 효능감	.137	.056	.141	2.460	.015**	.979	1.021
R ² = .530, F = 17.301, P = .000							

* <0.01, ** <0.05, *** <0.1

<표 6> 회귀 분석 결과(지속적 이용의도: 경험자)

모형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태도	.815	.048	.751	17.112	.000*	1.000	1.000
R ² = .751, F = 292.810, P = .000							

* <0.01, ** <0.05, *** <0.1

<표 7> 회귀 분석 결과(성적: 경험자)

모형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태도	.593	.068	.500	8.668	.000*	1.000	1.000
R ² = .500, F = 75.141, P = .000							

IV. 결론

교육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터넷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7]. 특히 SNS는 토론 및 피드백 제공과 같은 그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적 도구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27]. 즉 개인적이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주목받던 SNS가 효과적인 교육적 도구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38]. SNS가 교육적 도구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이 무료이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NS 활용 수업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의 모든 요인이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적 기대가치의 경우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학습자들이(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SNS를 활용하는 수업을 경험해 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과목에 비해 더 좋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기존의 LMS 이외에 수업에서 SNS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알림 설정을 통해 SNS는 LMS에 비해 신속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덜 구조화된 비공식적 채널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편하게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즐거움이 경험자 그룹에서 교육적 기대가치 다음으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SNS는 수업 외 시간에 면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방식

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덜 공식적인 상황에서 수업 목적 뿐 아니라 즐거움의 관점에서 SNS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습관과 주관적 규범 역시 학습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는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SNS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당국 차원에서는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교수자들에게 다양한 SNS 이용을 권장하고 특강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체활용 효능감은 경험자와 비경험자 그룹 모두에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SNS의 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전히 SNS의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염려도 없지 않다. 웨버는 자신의 연구에서 교육에 SNS 사용을 꺼리게 하는 4가지 장애요소, (1)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게 되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2) 개인정보 유출, (3) 사이버 폭력과 스토킹, (4) 앱이나 말웨어를 통한 바이러스에 노출, (5) 감시와 첩보에 이용될 위험성 등을 제시한다[39]. 따라서 수업 활용을 위한 올바른 SNS 활용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SNS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SNS 활용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비교하여 SNS 교육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적이라는 구체적인 성과 변수를 추가하여 SNS의 교육적 활용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표본이 다소 많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힘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른 성별과 학년, 그리고 전공을 모두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업 및 활용되는 SNS의 유형을 고려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SNS의 교육적 활용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유형 및 과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SNS 사용 전 후의 학습자들의 태도를 비교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SNS 활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주영주 · 정유진, “대학생의 협력과제에서 SNS 활용에 대한 만족도와 사용의도의 영향 변인 분석,” *교육학연구*, 제54권, 제1호, 2016, pp. 127-150.
- [2] 이종연, “대학에서 SNS를 활용한 학습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2, pp. 93-123.
- [3] 정한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관한 대학생의 사용의도 탐색 연구: 대학 강의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31권, 제1호, 2015, pp. 39-72.
- [4] 이시화, “SNS를 활용한 대학 수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Edmodo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4권, 제5호, 2013, pp. 153-169.
- [5] 전은화, “SNS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특성이 협력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16, pp. 571-596.
- [6] Ellison, N. B., Steinfield, C., and Lampe, C.,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2, No. 4, 2007, pp. 1143-1168.
- [7] Peppler, K., and Solomou, M., “Building creativity: Collaborative learning and creativity in social media environments,” *On the Horizon*, Vol. 19, No. 1, 2011, pp. 13-23.
- [8] 전병호,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변인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6, pp. 51-59.
- [9] 박혜진 · 유병민, “SNS 활용 대학수업에서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 학습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 관계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0권, 제4호, 2014, pp. 649-674.
- [10] Davis, 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1989, pp. 319-340.
- [11] 전병호, “대학교의 정보교육 만족과 성과의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 *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14권, 제4호, 2010, pp. 477-489.
- [12] Wu, J. H, Tennyson, and Hisa, “A study of student satisfaction in a blended e-learning system environment,” *Computers & Education*, vol. 55, 2010, pp. 155-164.
- [13] Santhanam, R., Sasidharan, S., and Webster, J., “Using self-regulatory learning to enhance e-learning-based 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9, 2008, pp. 26-47.
- [14] Shih, H. P., “Assessi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ompetence on individual satisfaction with computer use: An IT student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2, 2006, pp. 1012-1026.
- [15]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 Processes, Vol. 50, No. 2, 1991, pp. 179-211.
- [16] Kwon, O., and Wen, Y., "An empirical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6, no. 2, 2010, pp. 254-263.
- [17] Venkatesh, Viswanath and Fred 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2, 2000, pp. 186-204.
- [18] 강소라 · 한수진 · 김유정, "와인의 온라인 구매의 주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18권, 제12호, 2013, pp. 123-138.
- [19] 홍세일 · 이빈 · 김병수, "모바일 쇼핑몰 고객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TPB와 신뢰의 통합적 관점에서,"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8권, 제2호, 2016, pp. 151-171.
- [20] 정한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관한 대학생의 사용의도 탐색 연구: 대학 강의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31권, 제1호, 2015, pp. 39-72.
- [21] H. C. Triandis,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ew York, NY, USA: John Wiley & Sons, 1971.
- [22] Limayem, M., and Hirt, S. G., "Force of habit and information systems usage: theory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4, 2003, pp. 65-97.
- [23] 김병수 · 김대길, "융복합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인지적, 감정적, 능동적, 행동적 충성도의 역할,"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1호, 2015, pp. 63-70.
- [24]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997.
- [25] Ha, I., Yoon, Y., and Choi, M., "Determinants of adoption of mobile games under mobile broadband wireless access environment,"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4, No. 3, 2007, pp. 276-286.
- [26] 정한호, "대학에서 강의보조도구로 활용되는 이러닝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기대일치모형, 기술수용모형, 계획된 행동이론, 몰입이론을 기반으로," *교육공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4, pp. 307-334.
- [27] Sujeet K. S, Ankita J. and Himanshu S., "A Multi-analytical approach to predict the Facebook usage in higher educ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55, 2016, pp. 340-353.
- [28] Davis, 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1989, pp. 319-340.
- [29] 전병호 · 강병구,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의 정보품질이 소비자의 만족과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정보학회지*, 제18권, 제3호, 2013, pp. 127-139.
- [30] J. E. Bailey and S. W. Pearson, "Development of a Tool for Measurement and Analyzing Computer User Satisfaction," *Management Science*, Vol. 29, No. 5, 1983, pp. 530-545.
- [31] A. W. Gatian, "Is user Satisfaction a Valid Measure of System Effectiveness?," *Information & Management*, Vol. 26, No. 3, 1994, pp. 119-131.
- [32] 전병호, "SNS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의 비교," *디지털산업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5, pp. 181-192.

- [33] 전병호·강병구, “SNS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4, pp. 169-179.
- [34] 한석영,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12호, 2015, pp. 987-1003.
- [35] Hair, J. T., R. E. Anderson and R. L. Tatham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Fif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36]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94.
- [37] R. Arteaga Sanchez, V. Cortijo and U. Jave, “Students’ perceptions of Facebooks for academic purposes,” Computers & Education, Vol. 70, 2014, pp. 138-149.
- [38] Paul A. Tess, “The role of social media in higher education classes (real and virtual) - A literature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9, 2013, pp. 60-68.
- [39] Alan S. Weber, “Consider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SNS) Use 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Information and Wireless Communications, Vol. 2, No. 4, 2012, pp. 306-321

■ 저자소개 ■



전 병 호
Jun Byounggho

2008년 9월~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부교수
2008년 2월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전략, 중소기업
정보화, 표준 및 적합성 평가,
표준경영, SNS 활용
E-mail : bojun00@swu.ac.kr



전 병 철
Jun Byoungchul

2012년 3월~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2010년 5월 바이올라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다문화성인교육전공 (Ph.D.)
관심분야 : 성인교육, 디지털 콘텐츠,
하이브리드 교육, 다문화교육,
빅데이터, 인공지능
E-mail : bjjun1202@gmail.com

논문접수일: 2016년 8월 18일
수 정 일: 2016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일